

유통·화장품 한 주 째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화장품업계 전방위 세무조사 '차이나드림' 찬물 (아주경제 15.9.4)

화장품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음.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 타깃은 주로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화장품 업체들임. 업체 관계자들은 '차이나 드림'으로 한껏 들뜬 업계에는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 정부가 겉으로는 K-뷰티를 장려하면서 뒤로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어, 본격적인 기업패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됨.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하우스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 이번 조사는 2011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로 8월초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관계자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음. 네이처리퍼블릭도 지난 8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음. 이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 산성엘엔에스에도 이달 초부터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산성엘엔에스는 중국에서 마스크팩을 성공시킨 리더스코스메틱의 모기업으로 국세청은 리더스코스메틱의 탈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내년 상반기 상장예정 호텔롯데 시가총액 12조여 원 예상(MK뉴스 15.9.2)

롯데그룹은 지난달 11일 이후 연내 전체 순환출자고리 416개 가운데 80%인 340개를 해소하는 작업을 진행 중. 지난달 2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제과 주식 1.3%를 매입하면서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140개의 순환출자고리를 이미 해소함. 롯데쇼핑이 보유한 롯데알미늄 지분(12.1%)과 롯데건설이 보유한 롯데쇼핑 지분(0.95%)을 매각하고, 롯데리아 상장으로 롯데제과(13.6%)와 롯데칠성음료(2.2%)가 보유한 구주를 매각하면 총 83.2%의 순환출자고리가 해소됨. 전문가들은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롯데호텔 상장 이후 소규모 합병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이 가진 자사주 규모가 미미한 데다 지주회사 격인 롯데호텔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 소규모 합병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이 회사 발행주식의 10%를 넘지 않는 합병을 말함. 롯데알미늄(순자산 1조1000억원) 롯데상사(순자산 7800억원) 등 비상장사들의 덩치는 롯데호텔 기업가치(15조원 안팎)의 10% 미만이어서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시킴.

방중 경제사절단에 화장품 관련 기업 28개사 선정(뷰티누리 15.9.1)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경제사절단 명단에 28개의 국내 화장품 관련 업체 및 연구소가 이름을 올림. 총 155개사가 선정된 이번 방중 경제사절단 가운데 이례적으로 국내 화장품 관련 28개사가 선정된 것은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고 지금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이번 경제사절단은 역대 최대규모로 대기업 23개, 중소·중견기업 105개, 경제단체 및 공공기관 27개 등 총 155개 기업·기관으로 구성됨. 경제사절단 선정기준은 △사업관련성(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 여부, 구체적 사업계획) △순방활용도(이번 행사 중 투자, 사업수주 등 성과 예상기업) △사업유망성(진출 유망기업 업종) 등을 고려. 특히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상당수 포함됨. 이는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전체 참가기업 가운데 82.2%에 해당하는 105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한 것. 지난 2013년 방중시 국내 중소기업의 비율 64.7%보다 높아 중국 시장을 개척해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엿볼 수 있는 대목.

현대판교점, 수도권 최대면적 브랜드 900개 쇼핑문화 바꾼다(MK뉴스 15.9.4)

공룡백화점의 등장으로 판교 일대가 들썩이고 있음. 지난 8월 21일 오픈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규모(영업면적 9만2578㎡)만 봐도 부산의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이어 전국 2위고 수도권에서는 최대 규모다. 판교점 이전에 수도권에서 가장 큰 백화

점이던 롯데 본점(7만㎡)보다 영업면적이 25% 크고, 인근 분당 상권에 있는 AK 분당점(3만6478㎡)과 롯데 분당점(3만㎡) 보다는 각각 2.4배와 3배가량 큼. 자랑거리인 식품관의 경우 축구장 두 개를 합친 넓이를 갖추고 있다. 입점 브랜드는 900여 개로 국내서 첫선을 보이는 글로벌 브랜드도 상당수. 이탈리아의 유명 프리미엄 식자재 브랜드 ‘이탈리(EATALY)’가 대표적 사례다. 덴마크 주스 체인점 ‘조앤더주스’와 미국 컵케이크 전문점 ‘매그놀리아’ 등도 국내 처음 선보이는 매장이며, 백화점의 노른자위 1층에는 루이비통 등 총 83개 해외명품 브랜드가 입점하고, 그중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등 46개 브랜드는 경기 남부 상권에 처음 선보임.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2016년 매출 8000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8800억원, 2020년엔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판교점 오픈으로 분당, 용인 등 인근 수도권 남부 유통업계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AK 플라자·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 주변 유통업체들은 리뉴얼 오픈을 하는 등 경쟁 태세에 돌입함.

조선3사, 홈쇼핑, 삼성서울병원 국감 증언대 선다(아시아경제 15.9.2)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국정감사 출석 증인을 확정. 조선3사와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의 현직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됨. 보건복지위에선 송재훈 삼성서울병원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 국회 산업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출석 증인 명단을 확정함. 조 단위 부실 논란을 겪고 있는 조선 빅3 CEO들인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이 국내 조선산업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증언대에 나란히 서게 될 전망이다. 홈쇼핑 업계에서도 대거 이름을 올렸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허태수 GS홈쇼핑 대표이사, 김일천 CJ오쇼핑 대표이사, 이영필 아임쇼핑 대표이사가 출석이 확정. 소셜커머스 업계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 필요를 이유로 박은상 위메프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신현성 티켓몬스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

코멘트

금주 전망 (9/7-11)

유통, 편의점 팔고 롯데쇼핑 매수 트렌드

- 3분기 유통업 동향은 온오프라인 전반적으로 2분기 대비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년 대비 매출 둔화와 수익성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최근 주가 트렌드는 그 동안 유통업 주가를 주도했던 편의점 차익 실현. 반면에 순환출자 해소와 롯데호텔을 비롯해 계열사 상장이 예상되는 롯데쇼핑에 매수세가 집중됨. 당분간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진한 펀더멘털 보다 모멘텀 중심의 트레이딩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화장품, 3분기 기우와 루머 확산으로 아모레퍼시픽 과도한 조정

화장품 업계가 무조건적인 중국 진출로 고평가를 받기에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러나 대표 종목에 대한 단기 실적에 대한 추측으로 인한 숏커버링 확대는 과도한 조정으로 판단됨. 화장품은 9월 국내 면세점의 회복이 3분기 실적 및 주가 회복에 가장 큰 캐털리스트가 될 것으로 보임.

표 1. 주간 Index 지표와 시가총액 증감률

	종가(₩)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주전	15일 전	1개월전	증감률	1주전	15일 전	1개월전
KOSPI	1,886.04	-2.66	롯데쇼핑	7.26	15.66	27.43	GS홈쇼핑	1.52	5.26	4.99
KOSDAQ	650.45	-5.45	현대백화점	-5.07	-8.17	-5.39	BGF리테일	-14.39	-9.54	-16.63
유통업	555.70	-4.79	신세계	-3.43	-1.65	11.68	GS리테일	-10.49	-1.67	5.37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2.16	-3.62	-4.64	코웨이	-6.74	-10.81	-16.46
KRW/USD	1,190.50	1.15	롯데하이마트	-9.26	-4.01	-12.70	아모레퍼시픽	-12.40	-12.75	-15.74
KRW/JPY	993.32	1.91	CJ오쇼핑	-5.50	-1.69	-7.94	LG생활건강	-6.36	-8.82	2.14
KRW/CNY	184.55	1.26	현대홈쇼핑	0.79	1.19	3.64	코스맥스	-8.78	-9.61	-8.99
			엔에스쇼핑	5.58	4.19	5.58	한국콜마	-11.40	-12.67	-16.26

자료: IBK투자증권